

“달궀진 광주, 녹지 확대·고층건물 규제”

녹지 적고 바람길 막혀 열섬현상 가속화 지적 시민 84%가 “심각”... 오늘 열섬대책 정책 포럼

광주시 곳곳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람길이 막혀 도심 열섬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전국 3번째로 녹지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무등산을 둘러싼 고층건물, 광주천을 비롯한 도심하천에 들어선 건축물이 뜨거운 도시 열섬 현상을 차갑게 달궀진 도시를 식혀줄 바람을 차단해 광주의 여름을 더욱 무덥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광주시민들도 녹지공간 부족과 고층건물의 바람길 차단이 열섬현상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광주시에 대해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비좁은 녹지에 바람길까지 막혀 뜨거워진 광주=6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도시열섬과 도시계획의 방향’이라는 정책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광주대 박석봉 교수(건축학)에 따르면 광주의 도심

열섬 현상은 무등산과 광주천 등 도심하천에 들어선 건축물과 개발행위에서 비롯됐다.

무등산을 둘러싸고 우후죽순 들어선 고층건물과 광주천을 비롯한 도심 하천에 들어선 건축물이 산과 시냇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막아서는 ‘바람길 차단벽’ 역할을 하면서 뜨겁게 달궀진 도시 공기를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봉천 등 지류하천 상당수도 개발되거나 하천의 형태가 변형되면서 녹지와 함께 도시를 식혀주는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행 도심 재개발 관련 규제를 보면, 용적률을 270%까지 허용하면서 도시의 밀집화·고층화를 불러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분석도 내놨다.

전남대 조동범 교수(조경학)도 도심 바람길을 막는 계획없는 도시계획 수정을

광주시의 당연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하천 주변 개발에 의한 차가운 공기 생성을 저해하는 곳으로 동림지구, 선운지구, 광천재개발지구, 첨단2지구, ▲1층주거지역 중상향 및 산자락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바람길 차단 지역으로는 동림동 운암산 자락 조합주택, 삼각동 엘리제프라임아파트, 제석산 남측 진아리제 아파트 등을 예로 들었다.

바람길을 차단하는 고층건물과 함께 광주시의 협소한 녹지공간도 도심 열섬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환경부 자료를 보면, 광주시 녹지비율은 41.79%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시민들도 “고층건물 규제, 녹지공간 늘려라”=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을 맞본 광주시민들도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녹지 공간을 대폭 늘리고 도심 바람길을 차단하는 신규 건축물 인허가를 엄격히 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윤희철 박사(도시개발)이 시민 22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응답자 83.9%는 “광주 열섬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220명의 시민 가운데 105명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광주 도심 녹지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응답자 84.7%는 고층건물이 바람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열섬 현상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박사는 “시민 220명이 광주시민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지만 5개 구 인구비율에 맞춰 적정하게 조사를 한 만큼 시민들의 뜻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전제한 뒤 “도심 열섬에 대한 시민 불만이 큰 만큼 광주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녹지공간 확보, 바람길 차단 건축물 규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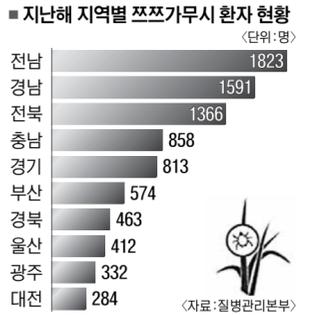
전남 찻잎무시증 ‘비상’

지난해 환자 1823명 전국 평균 3배...추석 성묘길 주의해야

추석 성묘길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지역의 찻잎무시증 발병이 전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등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바깥나들이를 할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 현재 전국 찻잎무시증 환자는 943명으로, 이 중 3명이 숨졌다. 전남에서는 158명이 발생해 경기 166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광주는 29명이 발병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찻잎무시증은 탈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오한·근육통·발진·큰딱지(가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야외 활동이 많은 8월 중순~10월 초에 진드기에 물리면 1~3주 정도 잠복기를 지나 발병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환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9~11월에 연중 환자의 90% 이상이 집중된다.



1492명에 달하는 수치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남은 기간동안 1300명 이상의 환자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다.

광주는 2013년 495명, 2014년 345명, 2015년 332명 등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소진드기, 대일탈진드기 등 매개 진드기들의 서식지가 남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환자 발생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찻잎무시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탈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9~11월)에는 야외에서 돛자리를 사용하고 풀밭 위에서는 돛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를 하는 것도 진드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눔의 송편 빛으니 “행복해” 광주시 서구 농성2동 복지협의체(위원장 고윤순) 회원들이 5일 농성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송편나눔행사에서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남아에 잘 팔리는 승합차만 흠쳐 밀수출

목포경찰, 일당 7명 검거

전국을 돌며 동남아에서 선호하는 승합차량만 골라 흠쳐 밀수출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5일 승합차 수십 대를 흠쳐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모(4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

지 목포 등 전국 24개 시·군에서 그랜드스타렉스 등 승합차 70대(16억원 상당)를 흠친 뒤 폐차 차량으로 속여 캄보디아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잘 팔리는 스타렉스 차종을 흠치기 위해 주로 교회 차량이나 학원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절도죄, 장물안전죄, 세관 통관죄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

사됐다.

차량 절도죄 최대(48)씨 등은 미리 준비한 열쇠 제작기구를 이용해 차량을 훔쳤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CCTV가 없거나 한적한 농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2~3차례 위조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들은 세관 통관절차 시 수출품목과 수출변장을 일일이 대조하며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인천 송도의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세관에 허위 신고를 하고 차를 캄보디아로 수출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메르스 의심 증상 50대 음성

광주시 남구보건소는 남구에 거주하는 A(55)씨가 최근 중증을 다녀온 후 고열, 기침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머물다 귀국한 뒤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자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당국은 그를 호남권국가지정격리병원에 입원, 격리조치했다.

/김형호기자 khh@

폭염 버스 유치원생 방치 인솔교사·버스기사 구속

4살 유치원생을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가량 방치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진웅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인솔교사 정모(여·28)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광주시 광산구의 S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임씨는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세차장에서 세차를 했고 유리창 선타때문에 차량 안에 A군이 있는 것을 모른 채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찰 앞 확성기로 장송곡 틀고 스님 괴롭힘 4명 경찰서행

○...사찰 앞에서 항의 목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수행중인 스님들의 수면 방해, 두통, 소화불량을 유발한 60대 남성들이 경찰서행.

○...5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A(60)씨 등 4명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내 한 사찰 앞에서 승합차를 세워둔 뒤 확성기 4대를 이용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장송곡을 반복적

으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스님들을 괴롭혔다는 것.

○...항의 집회를 주도한 A씨는 이 사찰의 말사인 순천의 한 사찰 인근에 어머니의 묘를 썼는데 사찰 측이 행정기관에 묘 이상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민원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왔는데, 이들이 발생시킨 소송을 잡다못한 스님들이 “해도 너무 한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구례=이성구기자 lsg@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1522·3396

<p>테마파크</p> <p>감정가 15억 담양 / 대지 1073평 건물 336평</p>	<p>토지</p> <p>감정가 12억 8천만원 쌍촌동 / 대지 499평</p>	<p>숙박시설</p> <p>북구 오룡동 / 대지 363평 건물 1199평 / 3동 7층</p> <p>감정가 38억 7천만, 최저가 38억 7천만</p>	<p>수익형 상가 빌딩</p> <p>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p> <p>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11억 9천만</p>
<p>상가</p> <p>감정가 6억 5천만원 봉선동 / 대지 157평 건물 78평</p>	<p>빌딩</p> <p>감정가 9억 5천만원 치평동 6층 / 대지 66평 건물 260평</p>	<p>숙박시설</p> <p>서구 양동 / 대지 175평 건물 352평 / 5층</p> <p>감정가 9억 5천만, 최저가 4억 9천만</p>	<p>고급 펜션 및 주택</p> <p>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p> <p>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p>
		<p>전통한옥식 전원주택</p> <p>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p> <p>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p>	<p>상가</p> <p>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p> <p>매매가 17억</p>
		<p>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p> <p>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p> <p>매매가 16억</p>	<p>상가</p> <p>서구 치평동 / 대지 56평 건물 61평 / 우체국인근 / 2층</p> <p>매매가 15억</p>
		<p>전원주택</p> <p>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매매가 13억</p>	<p>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p> <p>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p> <p>매매가 5억 5천만</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